

## 50여년 전 한 흉부외과 의사의 강의록

김 원 곤\*

### Lecture Note of a Thoracic Surgeon, Fifty More Years Ago

Won Gon Kim, M.D., Ph.D.\*

The late Professor Lee CB (1915~1967) was one of the pioneers in the early stages of thoracic surgery in Korea while he wa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the first director from 1957 until he died of liver cancer in 1967. He was a graduate from the ol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 dedicated himself to the field of lung surgery after he joined the army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mong his many contributions to pulmonary surgery, he performed the first partial lung resection in Korea in 1953. His lecture notes were recently found. These lecture notes for medical students were written by hand in late 1950s. Considering the content and form of the lecture notes, they are thought to have very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The lecture notes were a total of 277 pages on general thoracic surgery and cardiovascular surgery with 75 self-drawn figur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oracic surgery in Korea, and especially for young thoracic surgeons. These notes may well contribute to the field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in Korea.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807-812)

- Key words:** 1. History  
2. Thoracic surgery  
3. Education, Medical

흉부외과학은 많은 장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적 특성상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에서 그 발전의 바탕을 마련해 왔고 이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병원의 경우 여기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의사는 다른 임상과목과 마찬가지로 진료 이외에도 교육과 연구라는 중요한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중 교육 분야는 크게 전공의 교육과 학생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교육은 교육 본연의 본질적 가치와 함께 장래 흉부외과 지망생에 대한 동기 부여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흉부외과학이라는 학문의 도입 이후 많은 초기 개척

자들과 후속 의학자들의 노력으로 학생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는 단지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달 방법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고 이찬범(李燦范) 교수(1915~1967)는 국내 흉부외과학의 초기 개척자 중의 한 사람으로 1957년부터 1967년 암으로 인한 투병 사망 시까지 초대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외과의사로 활약하다 6.25 동란과 함께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흉부외과 특히 폐외과 분야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흉부전상 환자에 대하여 흉부과 편적출, 만성농흉에 대한 흉막박피술 등을 시행하였고 특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6일, 논문수정일 : 2009년 10월 14일, 심사통과일 : 2009년 10월 16일  
책임저자 : 김원곤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Tel) 02-2072-2346, (Fax) 02-764-3664, E-mail: wongon@plaza.snu.ac.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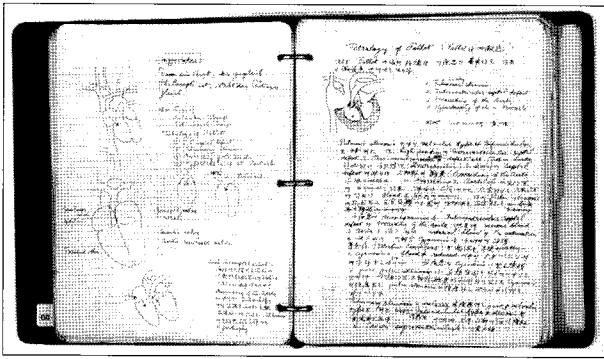


Fig. 1. The lecture note of professor Lee CB with self-drawing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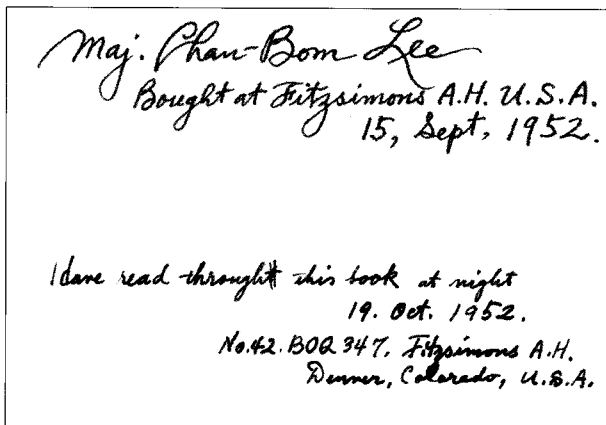


Fig. 2. The signature and some remarks written by Prof. Lee CB in the inside of the book titled <Thoracic Surgery by Richard H. Sweet (W. B. Saunders, Philadelphia & London, 1950)>.

히 1953년 8월 13일에는 폐부분절제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1]. 1957년 군의관 생활을 끝내고 교육병원인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새롭게 책임지게 된 그가 임상진료 이외에 당시 학생교육에도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이찬범 교수의 생전 학생 강의록이 발견되었다. 전량 자필로 기록된 이 강의록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그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취임하던 1957년 초부터 1959년 하반기 미국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거의 2년 반에 걸쳐 만든 것으로, 국내 흉부외과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이찬범 교수의 강의록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파일형 흑색 노트북으로 강의록 본문의 내용은 모두 277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강의록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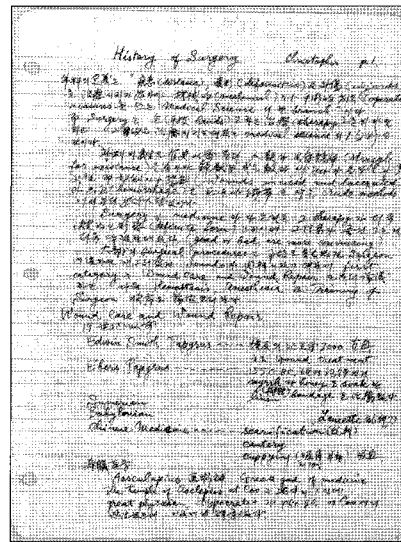


Fig. 3.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책의 내용과 함께 동반 그림들을 일일이 직접 옮겨 그린 75편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Fig. 1).

강의록 중간 중간에는 해당 부분의 강의 내용을 정리 완료한 일시가 기록 되어있다. 기록된 날짜 중 최초 일시는 1957년 2월 16일이고 마지막 일시는 1959년 7월 22일 도미 전이라고 되어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강의록은 1957년 초에서 1959년 하반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277페이지의 본문은 대부분 당시 가용한 외국의 흉부외과 관련 교과서 및 참고서들을 자세히 번역, 정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의록에는 당시 이찬범 교수가 참고한 책들의 목록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2-10].

참고 서적 중에서는 이찬범 교수가 1952년 군의관 신분으로 미국 Fitzsimons 육군병원에 단기 연수를 갔을 때 직접 구입한 서적들이 두 권 있었다[2,3]. 이 책들은 훗날 서울의대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이들 책에는 책 표지 안에 직접 구입 날짜를 기록해 두었으며, 그 중 한 권에서는[3] 책 마지막에 <1952년 10월 19일 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Fitzsimons 육군병원 BOQ에서 이 책을 완전히 읽었다.>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다(Fig. 2).

강의록 본문의 내용은 흉부 해부학과 외과의 역사[10]를 시작으로(Fig. 3), 크게 일반흉부외과학과 심혈관외과학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일반흉부질환에서는 오늘날의 취급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폐, 식도, 횡격막, 기관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심혈관질환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선천성 질환 일부(개방성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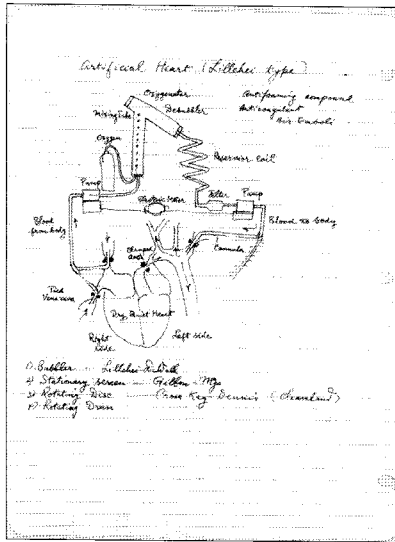


Fig. 4.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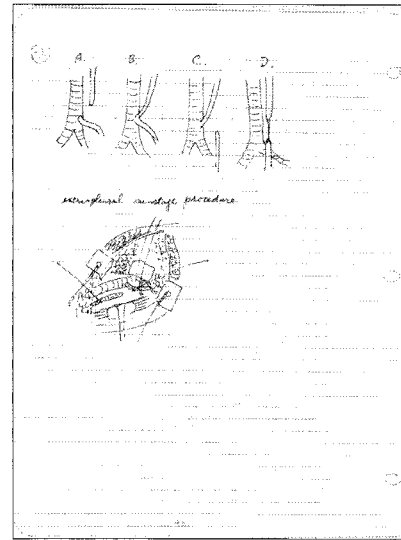


Fig. 6.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Constrictive Pericarditis

Constrictive Pericarditis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a thickened and fibrotic pericardium, which restricts the normal expansion of the heart during diastole. This leads to a decrease in cardiac output and symptoms such as dyspnea, peripheral edema, and ascites. The condition is often the result of a previous infection, such as tuberculosis, or a non-infectious cause like radiation therapy or autoimmune disease.

Pathology: The pericardium becomes thickened and calcified, forming a rigid shell around the heart. This shell prevents the heart from filling properly, leading to a 'water-bottle' appearance on chest X-ray. The heart is compressed, and the normal pericardial space is obliterated.

Diagnosis: Clinical signs include Kussmaul's sign (a paradoxical increase in jugular venous pressure during inspiration), a pericardial knock, and a prominent x-ray. Echocardiography shows a thickened pericardium and a small pericardial space. Cardiac catheterization may show equalization of pressures in all chambers.

Treatment: The primary treatment is pericardectomy, which involves the surgical removal of the constrictive pericardium. This procedure relieves the symptoms and improves the heart's ability to pump blood.

Fig. 5.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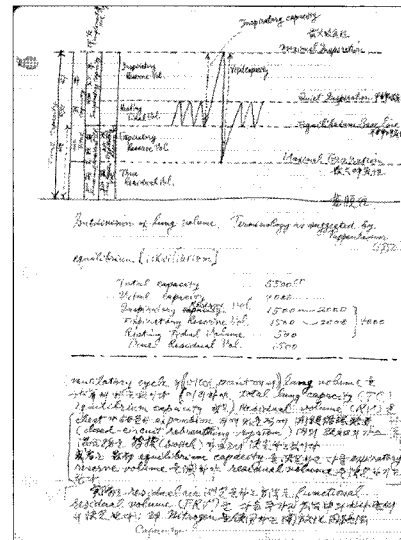


Fig. 7.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맥관, 대동맥 축착증, 팔로 사지증 등)와 승모판 협착증 등 일부 후천성 심장질환 만이 언급되고 있었다. 인공심 폐기에 관한 부분도 강의록에 기록되어 있었다(Fig. 4).

또 강의록 중간 중간에는 학생 시험문제 출제를 할 부분을 시(試)자로 표시한 부분도 발견 되었다(Fig. 5).

강의록에는 이찬범 교수가 참고서적을 보고 일일이 직접 그린 그림 75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각종 검사, 해부학, 수술 술기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일견 보기에도 대단히 치밀하여 이찬범 교수의 학문

적 열정과 함께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Fig. 6~11).

본 논문의 조사 대상이 된 강의록의 주인공인 고 이찬범 교수는 1915년 평북 박천 태생으로 경성제대 의학부를 13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42년 1월 경성제대 제 2외과에 임용되었다. 1945년에는 해방과 함께 경성대학 조교가 되었으며 1950년 3월에는 부산시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곧 이어 6.25 동란이 발발하자 입대하여 육군 군의관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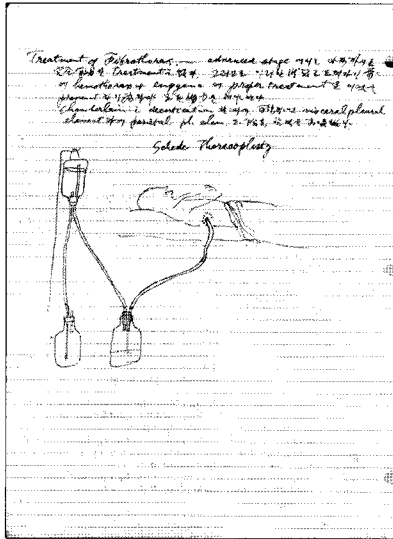


Fig. 8.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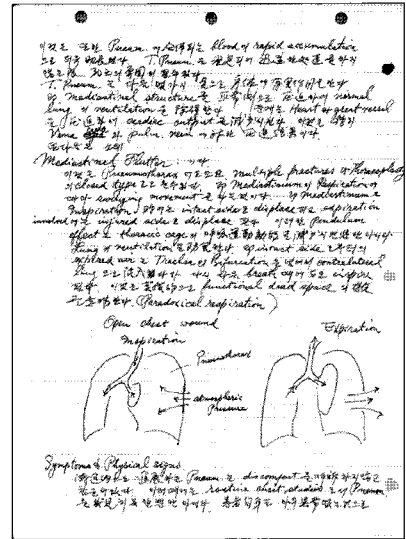


Fig. 10.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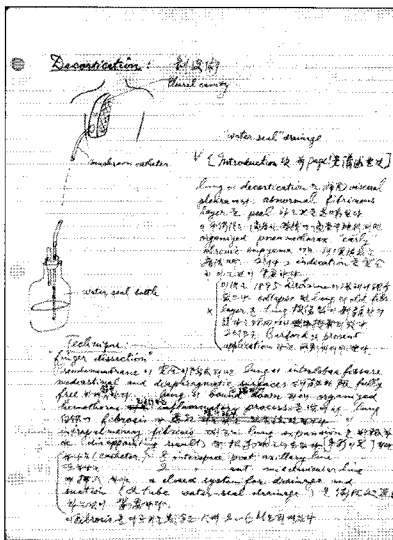


Fig. 9.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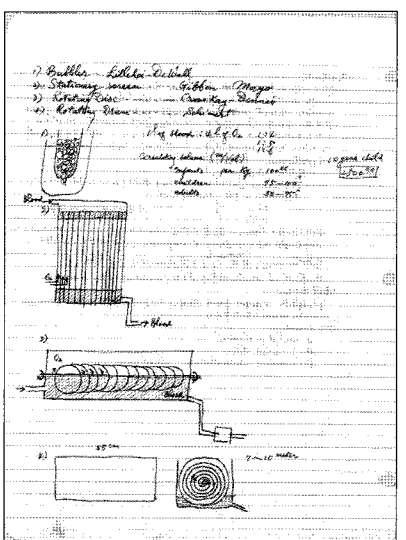


Fig. 11. A sample page of the lecture note.

이찬범 교수는 이 동안 전상자와 피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하여 덴마크에서 부산항에 파견한 병원선 Jutlandia호에서 1952년 2개월간 흉부외과 수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당시 덴마크 병원선은 현대식 시설과 수술 장비를 갖추고 전신 마취하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엄두도 못내던 개흉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찬범 교수는 또 이 해 하반기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Fitzimons 육군병원에서 연수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찬범 교수가 강의록을 만드는데 참고하였던 책

중 두 권은 이때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이었다. 특히 일반 흉부외과학 전문서적인 <Sweet의 Thoracic Surgery> [2]에서는 책 앞 표지 안쪽에 1952년 9월 15일이라는 구입날짜를 적고 책 본문 마지막에 <1952년 10월 19일 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Fitzimons 육군병원 BOQ에서 이 책을 완전히 읽었다.>라는 기록을 해 두고 있다. 총 334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그날 밤 한꺼번에 읽었다기보다는 한 달간에 걸쳐 꾸준히 읽다가 그날 밤 마무리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책에서는 소령이라는 당시 그의



Fig. 12. Prof. Lee CB (third from the right in the front row) with Dr George Schimert & Mrs Schimert, a medical consultant of the Minnesota project, and Korean staff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is picture was presumed to be taken between 1958 and 1959.

계급을 아울러 표시하고 있다.

1953년 8월 군에서는 6.25 동란 휴전 직전에 발생한 많은 흉부전상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산에 있었던 수도육군병원(1953년 10월 서울 이진과 함께 제36육군병원으로 바뀜)에 흉부외과를 설치하였다. 당시 미국 Fitzimons 육군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연수하고 막 돌아온 이 병원의 외과부장이었던 이찬범 육군소령은 흉부전상 환자에 대한 흉부파편적출, 만성농흉에 대한 흉막박피술 등을 실시하면서 폐외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또 1953년 8월 13일에는 한국 최초의 폐부분절제수술에 성공하기도 하였다[1]. 그때까지 전폐적출술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된바 있었으나 폐부분절제술은 처음이었다.

한편 1957년 1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현대의학의 조류에 따라 임상과를 전문 과목별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흉부외과도 하나의 진료과목으로서 분리, 독립되었다. 흉부외과 분리 시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자체에서는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산 제36군병원에서 한국흉부외과 특히 폐수술의 도입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시 이찬범 중령이 군에서 제대하면서 부교수 대우 겸 흉부외과 책임자로 임명되었다(Fig. 12). 이때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흉부외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찬범 교수는 그 후 195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폐외과 연수차 1년간 출국하였다. 귀국 후 많은 활동을 하였으

나 1967년 8월 19일 간암으로 52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이찬범 교수에 의해 전량 자필로 기록된 이 강의록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그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취임하던 1957년 초부터 1959년 하반기 미국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거의 2년 반에 걸쳐 만든 것으로, 국내 흉부외과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강의록 자체의 형식이다. 오늘날 컴퓨터로 수많은 자료가 손쉽게 관리되고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이 하나하나 자필로 적혀있는 노트 강의록이란 형식은 한 개인의 흔적을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역사가 된다. 둘째는 강의록의 내용이다. 빼곡한 글씨로 300페이지에 가깝게 적혀진 본 강의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도서관 등을 통해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던 미국, 일본의 교과서 등 각종 자료의 번역, 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원하기만 하면 교과서는 물론이고 각종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볼 때 학생강의를 위해 그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번역 기록 보관하였던 초기 선배 교수들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강의록에 함께 첨부된 그림과 도표들이다. 이찬범 교수 자신이 일일이 책의 그림과 도표들을 옮겨 그린 수십 편의 첨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복사기나 스캔이 일상화되어있는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경외감까지 느끼게 한다.

본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이찬범 교수가 미국에서 구입한 책 중 한권에 기록된 자필 메모가 되새겨진다. <1952년 10월 19일 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Fitzimons 육군병원 BOQ에서 이 책을 완전히 읽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당시 의료후진국이자 약소국가의 37세 된 한 흉부외과의사가 미국 군병원에서 한 밤중에 한권의 전문서적을 읽고 느꼈을 그 심정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그 느낌이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가로질러 오늘날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우리 모든 후학들만이 알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감대일 것이다.

### 조사자료 및 방법

이 조사의 바탕이 되는 고 이찬범 교수의 학생강의록은 흉부외과를 통해 기증되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원본을 토대로 하였다. 가급적 원

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원본을 모두 스캔한 뒤 그 사본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밖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실사[11], 이찬범 교수의 생전 논문 및 기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참고 되었다.

### 참 고 문 헌

1. 한국 최초의 폐부분절제술 성공. 보건세계 1953;9월호:6.
2. Richard HS. *Thoracic surgery*. Philadelphia & London: Saunders WB. 1950.
3. Donaldson JK. *Surgical disorders of the chest*. Philadelphia: Lea & Febiger. 1947.
4. Overholt and Langer. *The technique of pulmonary resection*. Thomas. 1949.
5. Forsee. *The surgery of pulmonary tuberculosis*. Lea & Febiger. 1954.
6. Eli H. Rubin. *Diseases of the Chest WITH EMPHASIS ON emphasizing X-ray diagnosis*. Philadelphia: WB Saunders. 1948.
7. Gustaf E. Lindskog, Averill A. Liebow. *Thoracic Surgery and Related Pat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3.
8. 鈴木. 폐절제요법. 행림서원, 1952.
9. 阪口. 폐결핵. 진단과 치료사, 1954.
10. Davis L. *Christopher's textbook of surgery*. 6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56. (AO Whipple, history of surgery, 1~22).
1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사. 2000.

#### =국문 초록=

고 이찬범(李燦范) 교수(1915~1967)는 국내 흉부외과학의 초기 개척자 중의 한 사람으로 1957년부터 1967년 간암으로 인한 투병 사망 시까지 초대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외과의로 활약하다 6.25 동란과 함께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흉부외과 특히 폐외과 분야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흉부전상 환자에 대하여 흉부과편적출, 만성농흉에 대한 흉막박피술 등을 시행하였고 특히 1953년 8월 13일에는 폐부분절제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러한 이찬범 교수의 생전 학생 강의록이 발견되었다. 전량 자필로 기록된 이 강의록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그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취임하던 1957년 초부터 1959년 하반기 미국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거의 2년 반에 걸쳐 만든 것으로, 국내 흉부외과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의록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파일형 흑색 노트북으로 강의록 본문의 내용은 모두 277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강의록에는 책의 내용과 함께 동반 그림들을 일일이 직접 옮겨 그린 75편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강의록을 통해 초기 흉부외과 학생교육에 대한 정황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흉부외과학의 보다 나은 발전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중심 단어 : 1. 역사  
2. 흉부외과  
3. 의학교육